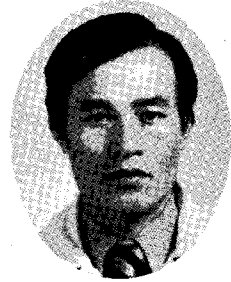


초생추의 하리증상

오 경 록
(천호부화장 질병연구실장)



1. 서 언

초생추 시기의 하리(설사)증상은 육추초기부터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원인 분석도 하기 전에 대부분 추백리로 안정하고 이 계군은 문제구나 하고 심적인 불안을 갖는다는 것은 육추 초부터 관리 의욕을 꺾는 크게 잘못된 생각인 것이다.

그러므로 초생추 시기의 하리 문제로 그동안 많은 질병연구자, 양계인들과 접촉하면서 얻은 결론과 자체에서 실험하여 얻은 결과들 토대로 기술함으로써 양계인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한편 사양관리에 지표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2. 증 상

처음에 초생추의 갈색연변이나 점액변이 홍문의 털에 묻어 굳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변이 묻어 털과 같이 흑갈색 덩어리로 되어 홍문을 폐쇄시키고 굵기야 변을 배설하기 곤란해진다.

배설이 곤란해진 초생추의 복부는 팽대하며 배에 바람을 넣은 것 같이 부풀어 있으며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배설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 폐사하게 된다.

홍문이 심하게 폐사되어 폐사되기 전까지는 활발하게 돌아다니며 활동하는 것도 특이한 증상중의 하나이다.

3. 발생상황

대개 3일령부터 시작하여 2주령까지 계속되며(빠르면 10일경에도 끝나는 경우도 있음) 2주령이 지나면 언제 그랬던가 싶을 정도로 없어진다.

전염율은 SPF계(특정 병원체 부재계: 실험용 닭)와 동거 시험 결과를 보아도 전혀되지 않으며 짧은 기간 중 많은 수가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전염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

폐사율은 높은 경우(10~20%)도 있으나 대부분 관리상태에 따라 수%에 그치며 2주가 지나면 폐사율은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한다.

4. 발생원인

원인은 다각적인 각도에서 검토되었으며 특히 추백리의 원인균은 각 분야의 연구자들이 실험을 실시하였으나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수입 종계나 무균시설하에서 사육하는 실험용 닭에서도 같은 증상의 경우가 종종 있어 추백리 및 기타 원인균을 추적하였으나 원

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광범위한 역학적인 조사를 종합 정리한 결과 어떠한 전염성 병인체에 의한 전염성 질병은 아닌 것으로 추론되었으며 초생추 개체별로 발생하는 생리적 하리 증상이라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었다. 그래서 생리적 하리증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며 하리변이 왜 홍문을 폐쇄하는가를 찾기 시작했으며 그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의 결론을 정리하면

가. 겨울' 육추에서 발생율이 높으니 온도 관리에 연관이 있다.

즉 육추기의 샷갓내와 실내온도 차이가 많은 경우에 부화기에서 갓 나와 차가운 상태로 수송 운반된 초생추는 샷갓 내에 들어가 나오기를 기피하다 난황이 소비되는 시기부터 탐식성이 발효하여 자연 사료를 먹기 시작하여 일시에 많은 물을 먹어 갈증을 해소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일시적인 연변을 초래하고 홍문털에 묻어 문제를 일으킨다.

나. 털의 지방질 함유율과 연관이 있다.

털의 지방이 적으면 발생시 초생추가 털이 아주 감촉이 좋을 정도로 부드러운 감을 주며 외부 모양도 토실토실하게 보인다. 그러나 털의 지방질 함유율이 적으므로 연변이나 하리변이 홍문의 솜털에 쉽게 부착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홍문 폐쇄가 비교적 쉽게 유발되며 초생추의 생리적 환우일령 (9-13일)이 경과하면 새로운 털의 교체와 더불어 유선(기름샘)의 지방이 털에 묻게 되므로 자연히 연변이나 하리변이 털에 부착하기 어렵게 되어 증상이 없어지게 된다.

다. 초생추의 발생시기 경과, 첫물 급여상태에 따른 탈수현상과 연관이 있다.

특히 건조한 여름철에 발생후 첫물 급여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경과된 초생추는 자연히 탈수현상이 있게 되며 더불어 첫물 급여상태가 미비하면 급수량의 과부족 현상이 일어나며 부족한 초생추는 다리가 마르며 힘이 없이 조기 폐사할 것이며 과다한 초생추는 생

리적으로 연변이 한 순간 발생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정상변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므로 연변이 발생하여 홍문에 부착되는 시기만 잘 넘기면 얼마 후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초생추 상태와 발생후 경과 시간에 따라 첫물 급여에 많은 관리 집중과 기술을 요한다는 뜻이다.

라. 장내 세균 총수와 변화와 연관이 있다
어떠한 요인(항생제 사용, 한냉노출 등)으로 정상적인 장내 세균들의 분포가 깨어져 소화율에 지장을 주며 점액변 내지는 연변, 소화불량변을 배설하게 된다.

따라서 추백리와 같은 증상을 보이게 되며 일정기간 후 항병력이 증가와 환경 적응력의 복귀로 장내세균 분포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됨에 따라 증상이 없어지게 된다.

마. 기타 건조한 육추, 환기와 연관이 있다고도 한다.

5. 예방대책

가. 샷갓 내외의 온도 차이를 줄여 외부에서의 활동시간을 많이 주며 샷갓 내에서 나오지 않는 초생추가 없나 항시 주의있게 관리한다.

나. 초생추 상태와 발생후 경과시간에 따라 첫물 급여에 주의와 기술을 요한다.

다. 소화 흡수율을 좋게 하기 위하여 2주령까지 소화제를 급여한다.

라. 추백리 기타 질병으로 단정하여 관리의 소홀 및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 가능하다면 홍문에 부착된 계분을 빼어주는 성의라도 보이면서 관리한다.

마. 초생추 우모의 지방 함유율을 고려하여 문제점을 보완한다. (육종학자)

바. 바닥에서 직접 찬 공기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며 건조한 육추(1주내)를 피한다.

사. 겨울 육추시 발생율이 높으므로 문제가 되는 양계가는 육추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육추 준비를 한다.